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 천변 2길 6번지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밀라노 현지에서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코리아하우스'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5극만으론 균형발전 불가”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4곳, 공동 입장문 발표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 공동대응키로
광역통합 특별법 졸립에 반발... 형평성 있어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행정통합에 대규모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가 적극 논의되면서 먼저 길을 닦아온 특별자치시·도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 실현의 임계점을 돌파할 전략적 승부수”라며 “광역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별법을 개

정할 때마다 법안 통과가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원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도 ‘국토균형 발전 전략’의 가장 큰 이해충돌 영역을 선물 주듯이 주는 건 문체부에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재정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연간 5조원을 통합 특별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최근 중앙부처의 타 시도 이전 거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흐드는 위험한 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목소리를 힘을 모아준 특별자치시·도 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협의회와 함께 특별법 심사 지연에 적극 대응해 끝까지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통합 특별법안 심사시 3특·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4일에는 국회에서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소득창출 연금도시 조성’

민주 이원택 의원,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비람연금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전주, 군산, 익산을 비롯한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후 전북 탈피를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도민 애로사항을 청취 및 이를 해결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하고 실행에 들어간 정책을 적극 선전하면서 전북에 접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가 하면, 광활하고 원대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활용, 지방부자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이어가는데 초점을 맞춰 민생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이 의원에 따르면, 도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연금도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비람연금, 농어촌 햇빛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은 물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어찌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를 설득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전북이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이를 뿌리내리기 위해 피지컬 AI와 기반을 조성, 실질적인 먹거리와 인프라 확충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각종 정책을 창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도시 조성, 산업정책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새로운 도약 시대를 도약과 함께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북을 탈피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예고된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영국의 석학 아널드 토인비 말처럼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따라 기업유치를 외치는 수준을 넘어서 국내의 기업들이 전북을 스스로 찾아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 나가는 각종 대안을 마련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은 향후 전북 도정 4년 내 가혹한 시련을 견디고 일어서는 인동초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인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하는 삼각편대를 이뤄 전북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이 갖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외발적 발전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 활용하는데 방침을 맞추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전북은 예전부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전은 커녕 청년과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인구소멸 현상을 초래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기반 최첨단 신산업과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대전환을 만들어내면서 전북이 전국에서 우뚝 서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민주 도당,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95명 신청

제8회인 2022년보다 10명 증가... 본격 자격심사 돌입
기초단체장 63명·광역의원 83명·기초의원 337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 결과 총 49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485명보다 10명 증가한 수치로, 전반적으로 출마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황선철)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접수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자격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63명(정수 14명), 광역의원 88명(정수 36명), 광

역의원 비례대표 10명(정수 4명), 시·기초의원 197명(정수 130명), 시·기초의원 비례대표 21명(정수 16명), 군·기초의원 97명(정수 68명), 군·기초의원 비례대표 21명(정수 9명)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2022년 58명에서 63명으로 5명이 늘어나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2022년 107명에서 98명으로 9명 감소해 다소 출마 규모가 줄어든 모습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타났다. 시·군 기초의원(비례 포함) 신청자는 2022년 320명에서 이번 337명으로 17명 증가해 풀뿌리 지방정

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 등 법적·도덕적 결격 여부를 비롯해 당원 활동을 통한 정체성과 당 기여도 정책 이해도와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예외 없는 심사를 원칙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가 완료된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를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공천 절차는 중앙당 및 당원·당구에 따라 진행된다.
도당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별해 지방선거 승리와 책임 있는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한 줄 소식

조국 “13일까지 민주당 공식입장 없으면 합당은 없다”

진안고원
JINAN GOWON

설명절 최고의 선물

소중한 고객을 위한 진안의 선택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진안고원에서 정성어린 손길로 마이산의 정기를 흠뻑 받아 만든 건강한 진안의 농·특산물을 선물하세요.

NAVER 진안고원을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에서
설명절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p>진안사과 선물세트 5kg 선물세트 : W시중가</p>	<p>전북인삼농협 6년근 홍삼농축액, 6년근 홍삼베리리프 젤리스틱 W39,000원 ~ 120,000원</p>	<p>진안홍삼 다량액 선물세트 진안홍삼 인증업체 다량액 선물세트 입세별 가격은 진안고원몰에서 확인</p>
<p>진안고원 한과 선물세트 협생유과, 풍유과, 한과바구니세트 W20,000원 ~ 64,000원</p>	<p>전북인삼농협 홍삼에칭향, 홍양향, 홍단향 W12,000원 ~ 35,000원</p>	<p>수라간 도라지정과, 인후단, 덕덕정과 W55,000원 ~ 85,000원</p>

QR코드 스캔하여 진안고원몰 방문하세요.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 할인행사 2.6 ~ 2.10.(5일간) 진행됩니다.

더 많은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진안고원몰을 검색하세요.